

아케엠주보

연중 제 2 주일
(일치 주간)

Association of Korean Catholic Communities of the Middle East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요한 1,29)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 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 장 우종관 대건 안드레아 (+971 50 940 7275)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 무 실 +971 2 446 1929

주 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바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루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웨이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타르** 목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연중 제2주일(일치 주간)

연중 제29주일인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증언하는 장면을 전해 줍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양”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이 미사에 참여합시다.

• 제1독서

이사 49,3.5-6

• 입당송 시편 65(65),4 참조

• 화답송 시편 40(39),2ㄱㄴ과4ㄱㄴ.7-8ㄱㄴ.8ㄷ-9.10(◎ 8ㄴ과 9ㄱ)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을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제2독서

1코린 1,1-3

• 복음환호송 요한 1,14.12 참조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 알렐루야.

• 복음

요한 1,29-34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치의 주님,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시작하는 교회를 살피시어,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는 이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세상을 구원을 위하여 힘을 모으게 하소서.

2.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창조의 주님, 기후 위기 속에 갖가지 재해를 겪고 있는 이 나라를 살피시어, 지구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3. 냉담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냉담 교우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주님께서 늘 함께하심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풍요로움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하소서.

4. 중동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일치의 주님, 중동 한인 공동체가 서로 사랑 안에서 문안하고 서로의 사정을 돌보게 하시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를 이루어 가게 하소서.

• 영성체송

시편 23(22),5 참조

[아캠] 2026년 아캠 총회

중 동 한 인
AKCCME 가 톨 릭
공 동 체



- ▶ 대 상 : 회장단 및 각 공동체 여성 대표
- ▶ 일 시 : 1월 20일 (화) 20시 (UAE 기준)
- ▶ 방 법 : '아캠 공용 줌' 으로 접속(회의 번호: 895 0419 9583, 비밀 번호: 1004)
- ▶ 안 건 : 신임 위원 소개, 회칙 리뷰, 연간 계획, 재정 보고, 신임 회장 선출 등

※ 대표 유고시, 반드시 대리자를 지정하여 참석해 주십시오.

'아캠 회칙' 개정 요청 접수

아캠 총회를 앞두고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회칙'에 대한 개정 요청이 있으신 분은 1월 16일까지 사무국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회칙은 아캠 카페(<https://cafe.dau.net/akccm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캠] '이란'과 '중동의 평화'를 위한 기도



이란 시위의 강경 진압으로 이란 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국제적 갈등으로 인해 중동의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의 통신 차단으로 이란 공동체 형제자매님의 안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 공동체와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사태로 인해 희생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위기가 중동으로 확산되지 않고 평화로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특별 회년과 전대사

1월 10일, 레오 14세 교황께서는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특별 회년과 전대사를 선포하셨습니다.

- ▶ 특별 회년 기간: 2026년 1월 10일 ~ 2027년 1월 10일
- ▶ 전대사 조건: 1) 기본 조건 -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른 기도
2) 추가 조건 - 프란치스코 성지 (프란치스코 성당과 경당, 성 프란치스코에게 봉헌된 성당, 성 프란치스코와 연결된 예배 장소)를 순례의 의미로 방문하여 회년 예식에 참여하거나 신심 깊은 기도와 묵상하기, 주님의 기도, 사도신경, 성 프란치스코, 성녀 클라라 및 프란치스코 성인들에게 드리는 전구 기도 하기

[교종 레오 14세] 1월 기도 지향

1월: 하느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하느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 삶의 양식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 희망의 원천이 되어, 더욱 형제애 넘치고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를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현존 50주년 준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께서서는 이집트 종살이하던 당신 백성을 부르시어,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나이다.(탈출 13,21)

참된 자유를 찾아 광야를 걸었던 2000년 전 당신 백성처럼
이곳 광야에서 평화의 사도인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현존 50주년을 향해 순례하는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를 굽어살피시어,

말씀과 성체 안에서 당신을 만나고,
이웃 안에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 중에
당신의 모친 마리아의 보호를 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서른 배, 예순 배, 백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침내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뵈옵는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아라비아의 성모 마리아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바치는 기도



-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예수님,
지난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어
새해에는 나쁜습관을 버리고
맡은 책임을 다하여
가정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또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느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소서.
- ◎ 아멘.



그리스도교 일치 를 위한 기도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서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이다.
- 이제 저희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 저희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 ◎ 아멘.





바리사이 콤플렉스

주님과 늘 대립하던 바리사이파 사람들. 바리사이란 '분리된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속말로 난 너희들과 달라 하는 우월감을 말합니다. 이들은 열심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늘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에 지나치게 집착을 해서 율법이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한 길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망각했던 것이 이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법은 봤지만, 사람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병자들로 보신 반면에, 이들은 사람들을 죄인이나 아니냐 하는 이분법적 시선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차별 없이 사람들을 만나셨고 바리사이들은 사람들을 차별했던 것입니다.

또 이들은 사람들을 포용하기는커녕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이런 삶을 산 이유는 무엇인가?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을 채우고 우월감을 갖기 위해 애쓰는데, 종교 안에서 이런 야망을 채우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종종 성당에서 선을 넘어 부끄럽다 싶은 신자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자기가 영세 받은 지 오래된 것을 내세우는가 하면,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세우는 사람, 활동을 많이 한 것을 자기 치적으로 내세우는 사람 등 겸손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자기 무기로 내세우며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들이 본당마다 터를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조언이라고 하며 잔소리를 해대고 심지어 자기 추종자들을 모아 자기 세력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종교 안에서의 작은 권력화 현상인데, 대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사이 콤플렉스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얼핏 버섯 같아 보이지만, 독버섯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사람들, 봉사는 하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늘진 곳은 찾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을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하면 그 종교는 오염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사이들과 일전을 벌이셨던 것입니다.

아재 유머입니다. 사막에서 혼자 수행하던 수도자가 죽어서 천당문 쪽으로 가는데, 저 멀리 시장에서 매춘하던 여자가 보였습니다. '저런 여자는 천당에서 절대 안 받아줄거야.'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선뜻 천당문을 열어줬습니다. 이번에는 본인 차례. 그런데 서류를 보던 베드로 사도가 고개를 갸웃 하더니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그야말로 청정하게 산 나를 왜 안 받아줍니까?"하고 불멘소리로 항의하자 베드로 사도 왈 "저 여인은 생전에 사람들에게 선행을 많이 해서 천당입소 추천서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는데, 넌 평생 혼자 살아서 추천장이 하나도 없네~"하더랍니다.

천당 들어가는 조건은 얼마나 죄 없이 살았는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는가입니다.

<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서 > - 1



순례자의 모범,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지금은 '성지'로 불리는 장소가 다양하지만,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에게 '거룩한 땅(Terra Santa)'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부활 및 승천하신 예루살렘에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세 이후엔 정치적, 지리적, 그리고 종교적 이유로 베드로 사도의 무덤이 있는 로마와 큰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세 군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성지순례란 하늘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세상에서 살며 지었던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과 완전한 용서 즉, 연옥의 벌에 대한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 직접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라고 한다면 로마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사도들의 전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떠난다고 모두가 순례자라고 불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절 자신이 살던 동네를 떠난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용기와 함께 하느님께 나의 죽음까지 맡길 수 있는 전적인 믿음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성지에 언제 도착할지 그리고 다시 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였고 순례 중 유일한 희망은 하느님 섭리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자신의 한평생을 바쳐 살아간 사람들이 수도자라고 한다면 순례자는 한시적인 시간 속에서 자기가 살던 세상을 벗어나 또 다른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수도자처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순례는 또한 지역적으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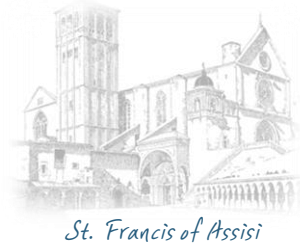
자신이 살아왔던 일상이나 습관, 악습, 생각, 행동들까지 모두 세상에 던져 버리는 자기 포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도자가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 주님의 부르심이 필요한 것처럼 순례자도 순례를 시작하기 전 자기 결심이 필요하였고 교회 전례를 통해 순례자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를 식별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바로 순례복, 지팡이 그리고 배낭이었습니다. 수도자가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외적 표시로 수도복을 입는 착복식을 하는 것처럼, 순례자도 순례 기간 일상의 세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봉헌하는 표시로 본당 신부님 앞에서 순례복을 입는 착복식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순례자는 교회의 가장 낮은 성직자가 되고 순례 중 만난 같은 순례복을 입은 사람들과는 국적을 떠나 깊은 동료애와 함께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자화된 규칙서는 없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청빈과 하느님께 모든 마음을 드리는 정결함, 그리고 순례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명의 마음이라는 특별한 길 위의 영성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순례자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길 위로 예수님을 따라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길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참회의 기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애덕을 실천하고 죽음을 맞이까지 하며 하느님께 다가가는 영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세의 수도원 중에는 수도회에 입회하기 전에 길 위의 영성을 먼저 살아보도록 권

<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서 > - 1



St. Francis of Assisi

고하였고, 이런 길 위의 순례 영성을 충실히 살며 수도회를 완성한 대표적인 창립자가 성 프란치스코였습니다.

순례자가 들고 가는 나무 지팡이는 순례 중 만날 수 있는 짐승이나 산도적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어 주기도 하였지만, 지팡이의 첫 번째 목적은 순례자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다른 발의 역할이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순례자에게는 세 개의 발을 가지게 된 것이며, 이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례자는 홀로 걸어가지만 혼자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부이신 오른발과 성자이신 왼발 그리고 성령의 하느님이신 지팡이에 의지를 하여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전적인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건은 순례자용 배낭입니다. 배낭은 크지 않게 하였고 죽은 동물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크지 않게 만든 이유는 순례 기간 자신의 계획이나 의지를 덜어내고 오로지 하느님 섭리에 믿음을 두는 사람으로서 음식이나 소유물도 최소한의 것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동물 가죽으로 만든 것은 순례 중 악습과 욕망, 배고픔과 목마름 등을 죽여야 하는 순례자의 금욕주의적 삶을 가르치고, 또한 죽음이 나와 멀지 않은 곳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이 죽음은 나를 슬픔으로 끌고가는 것이 아니라 프란치스코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께 친절히 인도할 누나와 같은 것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례는 나 중심이 아닌 하느님이 중심이 되어 천국으로 향하는 길 위의 영성입니다. 하느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해야

하는 것은 하느님 은총의 빗물이 채워질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한한 그릇이 아닙니다.



아씨시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 앞, 전쟁터에서 돌아온 지친 프란치스코를 형상화한 청동상. 하느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던 그의 첫 마음을 상징한다. 이관술 제공

마음 그릇의 한계를 넘으면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하느님 은총의 빗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음 그릇 밖으로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 은총의 빗물이 채워질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적의 영성을 현실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성 프란치스코이고 우리를 다시 8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글 : 이관술 요한 마리아 비안네, 가톨릭 신문 발췌>

소금 한 꼬집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고자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월간 생활성서 '소금항아리'에서-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बैंकिंग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ARAK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챗  최은정 셀레나 (055. 360. 0733)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 100% Handmade • 100% Fresh Fruits •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GULF KOREAN TIMES 걸프 코리아 타임즈 • 중동 대표 한인 교민 신문 •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비즈니스 홍보 & 마케팅 기회 제공 • 외국 커뮤니티와의 협력, 유대 기회 정미숙 라파엘라 (광고 문의) (+971) 50 461 3991 /  : @gktmedia
---	--	--